



제목	딤미 제도와 이슬람의 관용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 (지중해지역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일	2011. 8.
저자	황의갑
출판도시	부산
페이지수	57-78
ISBN 또는 ISSN	1229-7542

**내용 요약**

이 논문은 이슬람세계의 피정복민 통치제도인 딤미 제도와, 딤미들에 대한 이슬람의 관용과 차별 조치, 그리고 딤미들의 활동과 지위의 시대적 변화 과정을 고찰한 논문이다. 저자에 따르면, 이슬람세계가 정복전쟁을 통해 영역을 확대해 가면서 이슬람세계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다양해졌다고 한다. 딤미는 그 구성원들 중의 하나였다. 딤미는 협약민으로서 이슬람국가의 보호를 받는 비무슬림이었다. 딤미에는 기독교인과 유대교인과 조로아스터교인이 포함되었다. 딤미는 국가로부터 그 존재를 용인 받았으며 법적으로도 지위를 보장받았다. 확대된 이슬람세계에서 딤미는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슬람 지배자들은 이들에게 개종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한다. 개종으로 딤미의 수가 감소하면 국가 재정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러한 딤미 제도가 비잔틴제국 시기에도 있었으며 딤미들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슬람세계에서도 초기에 딤미들에 대한 사회적, 법적 금지조치가 있었는데, 의복에 특별한 표시 착용, 탈 수 있는 동물의 제한, 무기 소지 금지, 건물 신축시 모스크보다 낮게 짓기, 공중목욕탕 사용 제한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딤미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는 완전한 자유와 자율성을 보장받았다고 한다. 이슬람세계의 중심이 된 오스만제국에서는 딤미 제도를 성문화한 밀레트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슬람 초기에는 딤미들의 위상이 매우 낮았으나 이후 일부 지역에서는 그들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딤미 공동체의 위상이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저자는 이슬람의 딤미 제도를 차별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서구 기독교세계의 관점에 대해 이베리아 기독교세계의 무슬림 차별사례를 언급하며 문제제기한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딤미 제도가 이슬람의 관용정신을 반영한 제도라고 평가한다.